

광주 중·고교 신입생들, 교복 못입고 1학기 보낼판

지난해 교복업체들 담합사태에 업체 대다수 4월까지 입찰제한 학교 “참여업체 없어 구매 미뤄” 신입생들, 자율복 입고 등·하교

광주교육청 “입찰 매뉴얼 강화”

지난해 벌어진 교복값 담합사태로 일선 학교가 교복 구매를 미루면서 신입생들이 교복도 입어보지 못한 채 1학기를 보내고 있다.

11일 광주지역 중·고교 등에 따르면 교복업체 담합으로 대부분 학교가 교복 입찰을 미뤘다. 지난해 기준 교복을 착용하는 광주 중·고등학교 144곳 중 통상 동·하복을 구매하는 시기인 지난해 10월~2월까지 나라장터에 교복 입찰 공고를 낸 광주지역 학교는 27곳에 그쳤다. 나머지 학교는 1학기가 지난 뒤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상황은 지난해 광주 교복업체 대부분이 담합을 한 탓에 부정당 업체 제재처분을 받으며 입찰 제한을 받았기 때문이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교복 납품가를 담합한 광주 교복 납품·판매 업체들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은 입찰방해와 독점 규제·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교복 대리점주 29명에 벌금 300만~1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광주 중·고교 147곳에서 발주한 161억원 규모 교복 구매 최저가 경쟁 입찰 387차례 중 289차례나 담합, 공정 입찰을 방해하고 32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광주시교육청은 담합에 가담한 업체 43곳 중 38곳에 대해 5~6개월 입찰참여 제한 조치했다. 5개월 입찰제한은 24곳이며 6개월 처분을 받은 곳은 14곳이다. 입찰 제한처분 시효는 3~4월 만료된다.

광주 지역 업체 대부분이 입찰 제한을 받으며 교복납품 업체가 줄자 학교 측에서는 입찰 제한이 풀리는 4월 이후부터 교복을 구매하겠다는 방침이다.

광주 남구 A중학교 관계자는 “원래 11월부터 학생 교복 구매를 위해 입찰 공고를 올리고 동·하복을 동시에 구매해왔지만 작년 담합사태가 벌어지면서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 하반기로 미뤘다”며 “현재 학생들은 자율 복장으로 등교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 광산구 B고등학교 관계자도 “원래 광주지역업체끼리 입찰을 진행했는데

이번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너무 적어 전남까지 확장해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납품단계부터 수선까지 학생·학부모들의 불편함이 커질 수 있다”며 “학생들은 사복으로 지내고 있으며 오는 5월 동·하복을 구매한 뒤 교복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제재 처분을 받은 업체

가 대다수인 관계로 입찰 참가에 어려움이 따를 것을 예상해 각 학교에 교복 착용 시기를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주문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광주교복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며 학교 현장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 입찰 매뉴얼을 개정했다”며 “교복 착용 시기를 미루더라도 업체들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더이상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착용 시기를 자율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처분을 약속하는 서류를 검토하는 등 교복 구매과정에서 학교와 학생, 학부모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



봄꽃 플로깅 챌린지 문인 광주 북구청장, 송윤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과 봉사원,북구새마을회 회원 등이 11일 광주 북구청 광장에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한 봄꽃 플로깅에서 기후환경 피켓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김영배 기자

故 정동년 전 5·18기념재단 이사장 기념사업회 추진

평생을 민주화운동가로 살다 영면에 든 고(故) 정동년 전 5·18기념재단 이사장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사업이 추진된다.

11일 정동년기념사업회 준비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는 18일 광주 동구 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다목적강당에서 정동년기념사업회(가칭) 창립총회가 열린다.

이번 창립총회는 정동년기념사업회 준비위원회가 주최하고,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사)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주관한다.

이들은 기념사업회를 통해 5·18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에 힘쓴 고인의 삶을 조망하는 유무형 사업을 추진, 정신을 후대에 알린다는 계획이다.

기념사업회는 이번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고인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학술, 교육, 문화사업 등을 모색하고 있다.

김승원 정동년기념사업회 창립준비위원은 “평생을 민주화를 위해 앞장서 온 정동년 전 이사장 생애를 기억하고 후대에 알리기 위해 사업회 창립을 추진하게 됐다”며 “시대 정의이자 광주정신의 상징인 정 전 이사장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널리

재송(齎松) 정동년선생 기념사업회(가칭) 창립총회

평생을 민주화운동가로써 그의 호(號), 재송(齎松)처럼 살다 가신 정동년 선생님의 해사한 뜻을 이루나 그립습니다. 길어가는 그리운 마음을 담아 선생님의 뜻을 잇기 위해 기념사업회를 창립하고 그의 유훈을 기리고자 합니다. 부디 함께 해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일시 2024. 4. 18 (목) 오후 3시

장소 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다목적강당

주최 재송(齎松) 정동년선생 기념사업회(가칭) 준비위원회

주관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사)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문의 062-675-3555 (광민회 사무국)

알리고 그의 유지를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943년 광주에서 태어난 고 정동년 전 이사장은 1980년 5월 당시 내란수괴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고 5·18 관련자 중 가장 오랜 수감생활을 했다. 이후 민주쟁취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5·18광주민중항쟁 연합 상임의장 등을 지내며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명예 회복 등에 앞장서다 지난 2022년 향년 80세로 별세했다. 강주비 기자

‘항일운동하다 퇴학’ 故 조용표 선생 95년만에 명예졸업장

광주일고 출신...유족, 일기장 기증

광주제일고등학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맞아 고 조용표 선생 명예졸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여식은 전남도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사업과 광주시교육청 명예졸업자 주인공 찾기 캠페인 일환이다.

조용표 선생에 대한 명예졸업장은 항일운동 참여로 퇴학 처분을 받은 지 95년 만이다.

조용표 선생은 1925년 광주고등보통학교(현 광주제일고)에 입학했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일어난 1929년 5학년생이던 그는 항일 운동에 동참했다가 퇴학을 처분을 받았다. 당시 학제로 보면 고등보통학교가 5년제였기에 졸업을 몇 달 앞둔 상황이었다.

조용표 선생은 1926년부터 1931년까지 일기를 썼다. 1929년 11월 3일 전후 쓴 일기는 학생독립운동사 공식 기록에 없는 학교 안팎 상황과 학생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인정



광주제일고등학교는 11일 본교 교장실에서 고 조용표 선생의 명예졸업장 수여식을 열어 아들 조용제(왼쪽에서 세 번째)씨에게 전달했다. 광주제일고 제공

받고 있다. 유족들은 사료적 가치를 고려, 선생의 일기를 한국학호남진흥원에 기증했다.

조용표 선생의 자녀 조영제씨는 “선친이 생전에 말씀을 아끼셔서 자세히 알 수 없었는데 일기를 통해 바르게 살려 번민하셨던 모습을 알게 됐다”며 “늦었지만 명예졸업으로 선친의 한을 풀어드린 것 같

아 기쁘다”고 말했다.

우재학 광주제일고 교장은 “조용표 동문의 자취는 정의롭고 자랑스러운 일고인의 표상이 아닐 수 없다. 이를 본받아 재학생들이 올바른 마음을 가진 실력 있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혜인 기자

나주경찰, 농촌 빈집만 골라 텃 40대 구속

나주경찰은 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밤에 농촌 빈집만 골라 수차례 물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A(40)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연말부터 최근까지 주로 낮에는 은신처에서 숨어지내고 밤에만 나주와 광주 근교 일대 비닐하우스와 농막에 침입해 술과 음식 등 생활용품을 5차례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 발생 후 마을방송과 마을회관 등을 대상으로 문단속 예방 홍보활동을 펼치고 3개월간 탐문과 추적 수사를 통해 A씨 은신처를 파악해 검거했다.

나주경찰 관계자는 “시골 마을에 거동이 수상하거나 낯선 차량이 보이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절도 피해를 막으려면 농막·비닐하우스 등 문단속을 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민섭 기자

주말 초여름 날씨... 최고 26도까지 오를듯

광주·전남지역은 낮 기온이 최고 26도까지 오르면서 따뜻한 주말 날씨를 보일 전망이다.

11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주말까지 광주·전남지역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기온이 평년보다 2~6도가량 높겠다.

일요일인 14일은 열기가 누적되고 따뜻한 남풍기류까지 더해져 내륙을 중심으로 26도까지 올라 5월 하순 기온을 보이겠다.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관리가 요구된다.

12일 아침최저기온은 8~12도, 낮최고기온은 20~24도가 되겠다.

13일 아침최저기온은 8~13도, 낮최고기온은 20~26도로 예측됐다.

해상에서는 주말까지 서해남부와 남해 서부해상에 짙은 바다안개가 낄 가능성이 있어 해상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음주는 광주·전남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15~16일 사이 남쪽 저기압이 통과함에 따라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광주 기상청 관계자는 “주말까지 맑은 가운데 기온도 올라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만큼 화기사용과 불씨관리 등 각종 화재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성아 기자